

국제곡물시세 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제공〉

■ 미산옥수수 강세현상 지속

지난 10월이후 강세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미국산 옥수수시세는 여전히 C&F 120불선 이상으로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시세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미국 콘벨트지역의 옥수수 수확지연을 들 수가 있다. 콘벨트지역의 수확지연은 주로 수확기의 일기불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11월 10일 현재 미국내 옥수수 수확진척율은 73%로 전년동기실적인 78%에 비해 5% 정도 뒤지고 있으며, 과거 평균치인 8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옥수수의 수확지연은 타작목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수수의 경우 11월 10일 현재 86%(전년동기 83%, 과거평균 84%), 대두의 경우 73%(전년동기 67%, 과거평균 81%), 소맥의 경우 90%(전년동기 88%, 과거평균 9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산 옥수수시세를 강세로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로 수입국들의 옥수수 수입집중현상을 들 수가 있는데, 최근 수확기를 맞아 소련, 대만, 멕시코, 브라질 등이 대량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문에 Gulf만의 선입과 FOB프리미엄은 최근들어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10월 1일 기준으로 Gulf만 선입이 톤당 15불이었던 것이 최근에 와선 18불대를 기록하고 있고, Gulf만의 FOB프리미엄도 10월 1일 기준으로 뷰셀당 29센트이었던 것이 11월 13일에는 40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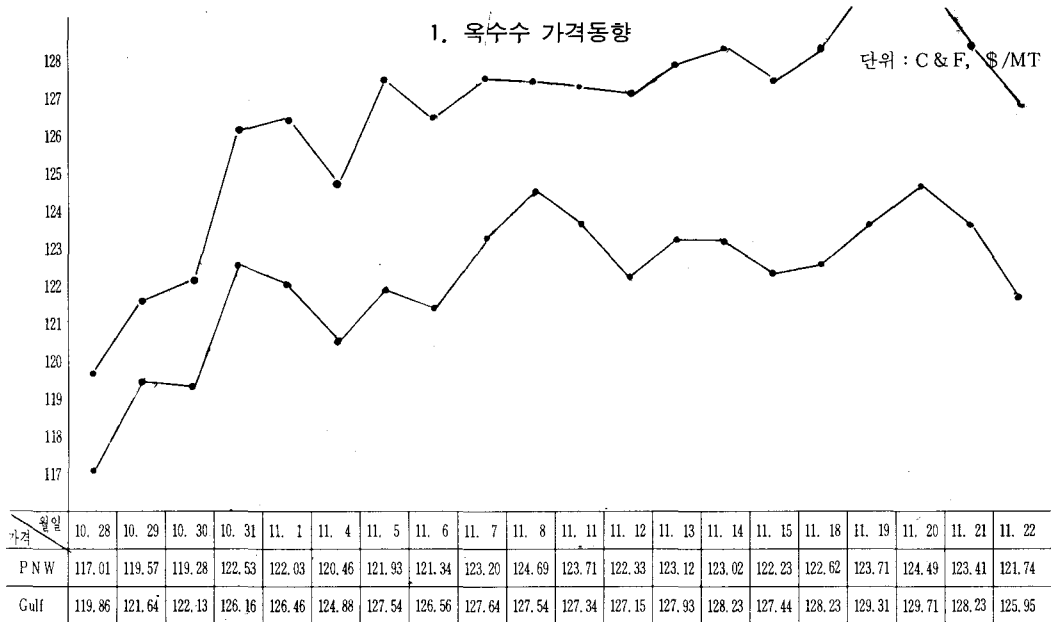
이밖에도 10월이후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는 US달러시세 역시 곡물시세를 강세로 몰아가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태국산 옥수수도 소폭 강세

미국 이외의 옥수수 수출시장으로는 중국, 태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중 중국을 제외한 3개국의 옥수수 수출물량은 금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SDA에서 11월 10일 발표한 주요옥수수 수출국들의 옥수수 수출예상량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금년에 860만톤 가량을 수출하여 지난해의 710만톤에 비해 21% 가량이 증가될 전망이다이며, 태국은 360만톤을 수출하여 지난해의 280만톤에 비해 28.6%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의 500만톤 수출에 비해 30% 가량이 크게 감소한 350만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도 금년도 옥수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은 4,130만톤으로 지난해의 4,700만톤에 비해 12% 가량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들 수출국중 가격면에서 미국산 옥수수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로는 태국산 옥수수와 남아프리카산 옥수수를 들 수가 있다.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 최근 시장가격이 C&F톤당 100~105불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태국산 옥수수에 대한 아플라톡신 함유량을 30 ppb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강세를 보이는 시세이다. 남아프리카산 옥수수는 일본에서 115불선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가격오퍼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공은 현재 수출조건강화 등으로 인해 옥수수수출을 정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Business가 아니라는 옥수수교역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옥수수 교역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옥수수의 경우 아직 가격제시가 없어 정확한 시세 파악은 어려우나 대체로 선임, 항해일수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다.

■ 향후 안정국면 전망

금후 미국산 옥수수의 소폭의 강세현상은 US 달러시세의 점진적하락과 재고유지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가격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후반기의 가격추세는 금년도 수확물량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전반기에 이루어질 옥수수식부작업 등 86/87년도의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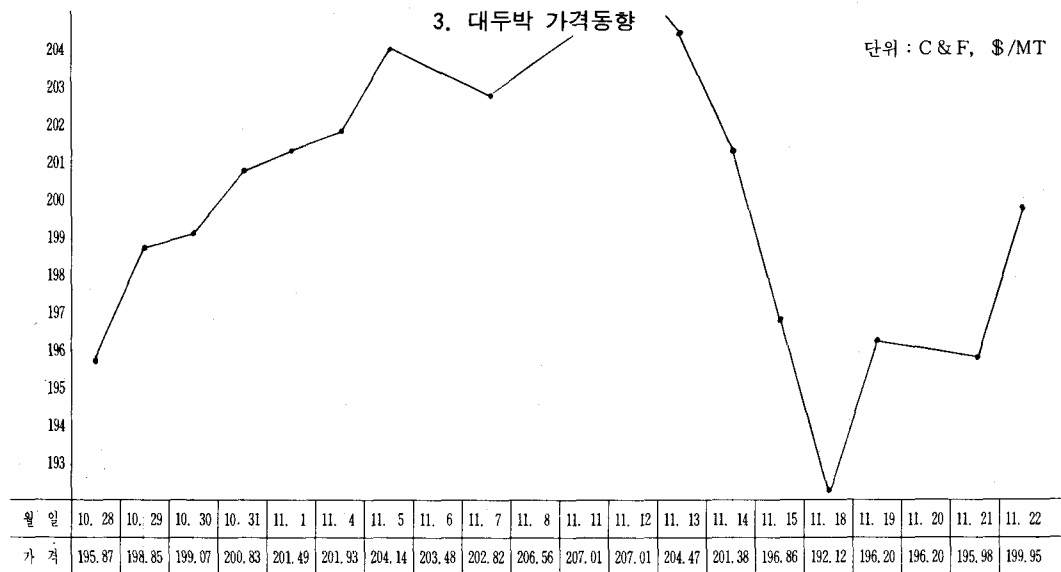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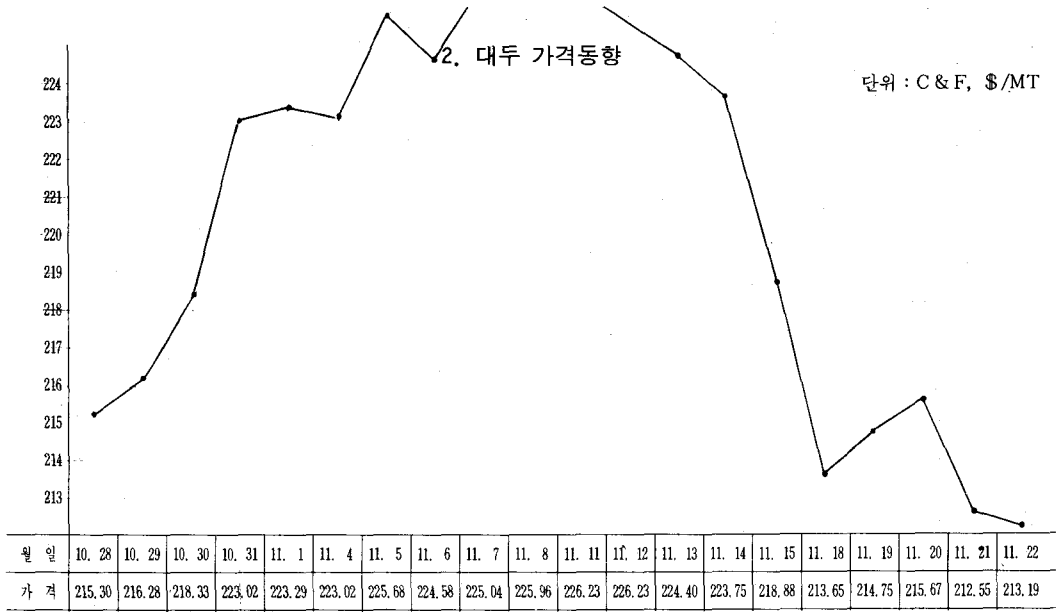
반면 그동안 동남아시아의 옥수수시장 가격안

정에 기여해온 중공의 옥수수수출여건이 점차 악화되면서 미국이외의 옥수수 수출국중 앞으로기대할 수 있는 곳은 태국이기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의 품질문제가 제기될 경우 금후 옥수수수입여건은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과 금년초의 경우 미산 옥수수 시세는 지금보다 20불 정도가 비싼 140불 수준이었고 다행히 120불수준의 중공산 옥수수 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미국산 옥수수만 수입한다 할 경우 120불이상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게될 가능성이 짙다.

■ 기타곡물, 전반적인 약세

전반적으로 기타곡물시세는 커다란 가격변화 없이 약세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옥수수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수수, 소맥, 호밀 등을 들 수가 있다. 호주산 소맥의 경우 C & F톤당 105불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수수는 미산이 105불, 캐나다산 호밀은 107불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타피오카시세는 여전히 70~75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 수입국들의 타피오카 수요증가로 인해 태국의 타피오카 재고가 소진될 경우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공



급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소련이 금년초 태국의 UMC사와 타피오카를 매년 50만톤씩 향후 5년간 공급키로 했으며 가격조건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도 태국의 타피오카생산량은 1,669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3%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금년도 생산량중 가루분말용을 제외한 펠렛 및 칩 생산을 위해 1,300만톤이 쓰여질 전망이다. 이를 제품화할 경우 520만톤의 타피오카 펠렛이 생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도 이월재고 물량이 130만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총 타피오카 제품수출가능물량은 650만톤이 되며, 이중 450만톤이 EC로 수출되고, 비EEC 지역으로는 200만톤 가량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된다. 아울러 그동안 재고누증으로 인해 고심해 오던 태국산 타피오카의 재고가 점차 소진되어 오면서 타피오카하드펠렛시세는 점차 강세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